

「심리적 측면 : 혼자 살기:‘자유’의 실체」에 관한 토론

김 향 은(고신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최근 들어 다양한 가족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가족유형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독신가구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 전체 가구의 4.8%에 불과하던 독신가구가 1990년에는 전체 가구의 9.0%, 그리고 2000년에는 전체 가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독신생활은 가족생활이 아니지만 이처럼 독신가구가 급증하면서 독신을 가족의 해체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창출로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더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독신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독신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라는 제목의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독신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심을 갖고 독신자들을 위한 각종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독신자들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모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독신가구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증대되고 있어 많은 가족학자들이 새로운 가족 유형의 하나로 독신가족의 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독신가족에게 집중되는 시선에 비하여 학문적인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 ‘독신가구:실태,문제,가정관리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독신가구의 심리적 측면을 발표하신 장현숙교수님의 수고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교수님께서서는 30대와 40대의 독신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독신자의 성격적·심리적 특성, 사회적·행동적 특성, 결혼관, 행복관, 성과 관련된 독신의 심리적 측면을 조사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낙천적이며 사회적인 독신’, ‘긍정적이고 평범한 결혼관’, ‘독신의 행복감은 반반’, ‘성에 대한 소극적인 자유로움’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셨습니다. 독신의 생활양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토론자는 장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의 논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독신의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연구의 제목을 「혼자 살기: '자유'의 실체」로 하였는데,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독신생활에서의 '자유'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기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독신의 삶'이라는 인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둘째, 독신의 유형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지위에 따른 분류 외에도 독신으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독신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일시적인지 안정적인지에 따라서도 그 심리적인 성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연구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쉽습니다. 연구대상이나 측정도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첨가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척도문항 중 일부는 독신자들만의 특성을 묻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측면에서 비교집단을 두었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를 독신생활의 핵심요소로 풀이하고 있는데, 결혼으로 인해 '구속'되는 부분이 독신에서의 '자유'로 인식된다면, 결혼을 통해 누리는 '자유'는 독신생활의 '구속'일 수 있는 만큼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신자들의 대다수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결과를 놓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에 냉정하거나 남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응답이 8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여성이 남성 보다 독신생활에 더 만족하고,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이성 친구를 더 원하며,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원 졸업자들보다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것 등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본 연구와 추후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독신생활의 요소를 밝히고 독신가구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독신자들(노인, 장애인 등)을 연구에 포함시키고, 심리적인 문제 외에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건강, 직업, 인간관계 등)를 연구의 범위로 확장시키며, 독신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복지 정책, 독신자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면 행복한 독신가족의 증가를 통한 복지의 구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